

카드 수수료인하, 소상공인-카드사노조 갈등 비화

“내려라” VS “죽는다”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뉴스시스

소상공인 “대기업과 3.3배 차별적”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보장 등 요구

업계 종사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 업계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 카드수수료 “대기업과 차별” vs “0.7%는 아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20여개 상인단체들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은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자영업 1차 총궐기대회를 열고 “카드수수료가 대기업의 3.3배로 차별적”이라며 카드 수수료를 대기업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이날 결의문에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지켜온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몬 근본 원인은 대기업의 독과점과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그리고 가맹비 수탈구조 및 대기업보다 3배 높은 심각한 카드수수료 차별”이라며 “현재 (규모) 5억원 초과 자영업 가맹점은 카드수수료가 2.3%지만 대기업은 0.7%”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협상권 보장 ▲원가산정 중소기업 가맹점 참여 보장 ▲체크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실제 대형가맹점이 내는 수수료가 영세업자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0.7%의 낮은 수수료율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지난해 평균수수료율은 1.

91%로 연 매출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서 적용된 평균 수수료율 2.08%에 비해 0.1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0.7% 카드수수료율은 특정 1개 업체의 적격비용 체계 도입 전 수수료율”이라며 “지난 2012년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 산정체계가 변경되고 난 뒤에는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 마케팅 비용, “막대하다” vs “부담 전가 안 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으로 혜택을 보는 곳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이 6조원 이상일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이를 합리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마케팅 비용 조정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카드사 경영 실적에) 영향을 받겠지만 (비용 조정을) 하다 보면 순이익이 불합리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협회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막대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마케팅 비용이 결산기준 6조7000억원으로 전체 카드수수료 수입 11조7000억원의 50% 이상이었다. 특히 이 비용은 대기업 가맹점에 편중돼 실질수수료율이 마이너스인 가맹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마케팅 비용이 있기에 소비자편의를 키우고 시장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기준 마케팅

카드사, 3분기 당기순익 마이너스 “수수료 인하면 인력 감축 불가피”

팅비용 90%는 카드소비자 혜택에 사용되고 있고 순수 광고선전비는 3.4%(2083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카드수수료, “인하해야” vs “구조조정 우려”

전국금융산업노조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카드사 노조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인 뒤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카드사 노조는 지난 10년간 9차례에 걸친 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으로 현재 카드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협회는 카드사 당기순이익이 카드결제금액과 결제비중 증가로 매년 평균 2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0.9%나 증가했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사실상 전년 동기 대비 31.9%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가맹점협회가 인용한 금감원 통계는 감목목적에 따른 대손준비금 적립 후 기준으로 산출된 실적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 당기순이익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카드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였다. 카드사 5곳(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의 올 3분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천막농성에 앞서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당기순이익은 3207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1.7% 줄었다. 여신협회는 올해 7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당기순이익은 1.65조원으로 전년 대비 25.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조치가 내려질 경우 카드업계 종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경호 카드사 노조협의회장은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부분을 카드 수수료에 전가할 경우 결국 피해가 전부 카드업계 종사자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우리은행, 수험생 ‘반가워 스무살’ 이벤트

우리은행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최신 노트북 등을 제공하는 ‘반가워 스무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2월 31일 출생한 고객 중 우리은행을 결제계좌로 이용하는 체크카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그램노트북(3명), 최신 아이폰(5명), 에어팟(12명) 등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며, 이 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이용실적 5만원당 1회씩 자동으로 응모된다. 또 응모자 전원에게 GS편의점에서 5000원 이상 결제시 사용가능한 3000원 쿠폰 1매를 증정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능 수험생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최신 노트북, 핸드폰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NH농협은행, 환율전망 세미나

NH농협은행은 지난 14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 호텔에서 수출입 기업고객 130여명을 초청해 ‘2019년上半기 환율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미경 NH농협은행 자금운용부 부부장(첫째줄 왼쪽 다섯번째)과 문영식 NH농협은행 외환·파생센터장(첫째줄 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NH농협은행 외환·파생센터 직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청약저축 신규가입 수험생 ‘1만 하나머니’

KEB하나은행 ‘수고했어, 수험생!’

KEB하나은행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고했어, 수험생!’ 이벤트를 오는 12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KEB하나은행의 유스(Youth)브랜드 ‘영하나(YOUNGHANA)’와 연계한 이번 이벤트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60만 수험생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힐링과 소통 이벤트를 제공한다.

이벤트에는 ▲‘Young하나 통장’과 ‘1Q Bank’ 앱 ▲‘Young하나 적금’ ▲‘도전 365적금’ 중 하나 이상을 신규가입 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 243명을 추첨해 1백만 원 상당의 ‘Young하나 장학금’, AIS피커,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하나의 시작’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가입하는 수험생 또는 학부모 2만명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만 하나

/김문호 기자 kmh@

선결제 골프장 상품 이용하면 7% 할인

Advertorial Corner

BC카드, 연말까지 이벤트 진행

BC카드가 연말까지 선결제 골프장 할인과 골프용품 할인 이벤트, 9만 9000원에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15일 BC카드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예약서비스인 골프존 티스캐너(Tee Scanner)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선결제 골프장’ 상품을 BC카드 결제할 경우 7% 즉시 할인(카드당 최대 2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결제 골프장’은 예약과 동시에 결



제를 진행해 골프장 이용 비용을 할인해주는 골프장을 말한다. 선결제 골프장 확인과 할인 혜택 제공은 모두 티스캐너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골프장 예약을 원하는 고객은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티스캐너’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 후 예약하면 된다.

BC카드의 골프용품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2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국 35개 골프존마켓 매장에서 BC카드 각 상품 구매 시 10% 청구할인(카드당 최대 1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총금액 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볼빅 트리플 소프트’ 골프공 1더즌도 받을 수 있다.

또 BC카드의 연말까지 매일 국내 명문 골프클럽에서 9만9000원에 라운딩(1)의 11월 접수를 시작했다.

16일부터 30일까지 BC카드 홈페이지, 간편결제 앱 ‘Paybooc(페이북)’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다음 달 12일에 개별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12월 31일까지 BC카드 골프 고객센터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면 된다.

/김희주 기자